등장인물

주인공

주인공 가족(엄마, 아빠, 여동생, 남동생)

수용소 동기

내부관계자(의료관계자나 식품을 관리하는 사람등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군인들(제복)

심문관(제복)

수용소 관리자(제복)

1. 스토리

에필로그

A나라와 B나라의 전쟁이 심화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주인공이 거주하는 지역 근처까지 확대 되었다는것을 컷신으로 보여줌

처음 주인공은 2층 침대에서 눈을 뜨며 아래층에 먼저 일어나 있는 가족들과 인사를 나눈 후 주변을 둘러보고 마을도 둘러본다. 마을에는 익숙하게 봤던 교회의 수녀님, 시장에 물건을 파는 아주머니와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보낸다. 그날 주인공은 가족들과 대화를 하며 신문을 보는데 점점 심각해지는 전쟁 상황을 보게된다.

주인공은 다음날도 비슷한 일상을 지내며 또다시 마을을 둘러보는데 마을에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마을을 서성거리며 돌아다녀 이전에 알고 있던 마을보다 어두운 분위기에 주인공은 위화감을 느끼고 집으로 가게된다.

집 앞에는 보지못했던 자동차들과 멀리서 보이는 집안에서는 군인들에 의해 끌려가는 가족들에 주인공은 도망가 보지만 잡혀서 수용소에 들어가게된다.

수용소 안에서 주인공은 군인이 아닌 내부 관계자와 친목을 다지게 되고 관계자에게 이곳에 대한 정보와 아이템등을 조력받게된다. 주인공은 행동을 할때 심문을 당하거나 관계자에게 여러 것을 받는대신 간단한 일들을 하게되고 나중에 지금까지 얻은 정보와 아이템을 이용해 살아서 나가게된다.

(ex - 내부관계자가 필요한 물건을 구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말들을 하여 친목을 쌓기)

(ex - 밤에활동하거나 낮에 일하는 도중 탈출활동(수상한 행동)을 할 시 심문을 당함)

(ex - 아이템(호감도 템, 정보 쪽지 등))

(ex - 가족의 생존유무)

엔딩

주인공은 탈출 후 같이 탈출 한 가족(생존 수에 따라 엔딩에 추가)과 안전한 곳에서 사는모습이 나옴

(너무 적은 가족이 살아남았다면 조금 쓸쓸하게 보이게 연출)

**첫날**

**장면: 주인공의 집 - 아침**

[주인공이 2층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아래층에서는 이미 가족들이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잠에서 깨어나며) 아침이네요. (소리를 내며 일어섭니다)

**엄마:** (주방에서) 아, 주인공이 일어났구나. 어서 내려와요. 아침을 준비했어요.

**아빠:** (신문을 읽으며) 아침이네. 전쟁 소식이 또 이러고 있네. 이런 일이 멈추길 바라지만...

**여동생:** (좀더 잔다는 투의 목소리로) 아침부터 이런 소리 듣기 싫어...

**남동생:** (급히 먹다가) 언제쯤 이 일들이 끝나나요?

**주인공:**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며) 맞아요. 정말 언제쯤이면 평화가 찾아올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우리는 함께 있으니까 괜찮아요.

**장면: 마을 - 첫날 아침**

[마을은 여느 때와 같이 평화롭습니다. 주인공은 집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나갑니다.]

**주인공:** (좋은 아침이네요. 마을은 평소와 같이 조용하네요.)

[주인공은 마을을 둘러보고 익숙한 얼굴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모두가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인공:** 수녀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가 될 거예요.

**수녀님:** 네, 그렇죠. 하지만 전쟁이 끝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주인공은 마을 사람들과 대화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밤이 되면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잠에 듭니다.]

**둘째 날**

**장면: 마을 - 둘째날 아침**

[주인공은 아침에 일어나 마을을 나갑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상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마을 곳곳에서 보입니다.]

**주인공:** (놀란 표정으로) 군인들이... 왜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주인공은 마을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불안한 분위기를 느낍니다.]

**마을 주민:** (조용한 목소리로) 어제부터 군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양식의 맨 위

[주인공은 마을을 둘러본 후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이전에 보지 못한 군인들과 자동차들이 보입니다. 주인공은 놀랍니다.]

**주인공:** (숨어서 주변을 둘러보며) 군인들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거지?

[주인공은 마을을 둘러보던 중, 집 앞에 이상한 차량들이 멈춰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총성과 함께 군인들이 집안에서 가족들을 끌고 나오게 합니다. 그 소리와 관경에 주인공은 당황하여 가족을 구하려고 합니다.]

**주인공:** (자신의 가족을 보고 소리치며) 어떻게 된 거야? 그들을 놓아줘!

**군인:** (냉혹하게) 뭐 하는 거냐? 이 얘도 끌고가.

**주인공:** (저항하며) 놓아줘! 내 가족을 놓아줘!

[주인공은 당황하여 도망치려고 합니다. 저항이 거센 주인공을 보며 군인 한명이 총을 쏜다.]

**엄마:** (주인공을 감싸며)

[주인공은 충격을 받고 오열한다.]

**군인:** (표정을 살짝 찡그리고 혀를 차며) 쯧, 데려가.

[하지만 결국 주인공은 슬픔과 무력함을 느끼며 결국 군인들에게 잡혀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